

여수·순천·광양시장 “광양만권 상생 협력” 다짐

3개 안건 15개사업 논의 여수공항 활성화 지원 등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회장 광양시장 정인화)는 14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수, 순천, 광양시장과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3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2022년 여수광 행정협의회 재무결산, 2023년 여수광 행정협의회 예산안 의결,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신규 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안건에 대해 △통합 환경관리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권 지방이양 건의는 원안 가결하고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자율주행버스 시범지구 지정은 실무 부서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공동 협력키로 했다.

또 △광양만권 수소 공급 공용 인프라 구축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건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유치 △전남 동부권 닥터헬기 배치 등 15개 연계·공동협력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협의회는 광양만권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협력해 가기로 했다.

정기회에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사전구매 약정식(여수 1억 1000만원, 광양 1억원)과 여수공항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병행됐다.

협의회장인 정인화 광양시장은 “3개시는 광양만권을 대표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그동안 여러 역할을 해왔다”며 “3개시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과 과제를 서로 협력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3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에도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임박했다”며 “주변 지자체의 적극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회장 광양시장 정인화)가 14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말했다.

한편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1986년에 구성되어 3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여수~별교간 고속도로 건설 건의, 3시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 가야문

화권 조사 연구,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공동 대응 업무 협약 등 3개 시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해 성과를 창출했다.

여수=이경기·순천=배서준·광양=안영준 기자

동천에 연어 5만 마리 방류 순천시, 환경보전 동참 유도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3일 동천수역에서 국가 기후변화지정종인 어린 연어 5만마리를 방류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천의 생태 건강성을 알리고 환경보전에 동참을 유도하고 모천회귀 기원을 담아 어린 연어를 하천에 보내주는 행사로 진행됐다.

동천에 방류한 연어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 부화한 어린 개체로 방류생물 질병경사를 통과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봄꽃화분 직접 방문 전달 광양 중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

광양시 중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기가구, 홀로 사는 노인, 중증장애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봄꽃화분과 희망 엽서를 전달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봄꽃을 지원하고 중마동 장애인복지관에서 화분 300개를 후원받아 중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어르신지킴이단에서 식재한 봄꽃을 어려운 이웃 1가정당 2개의 화분을 직접 방문 전달하는 사업이다.

정현주 중마장애인복지관장은 “주위에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번 봄꽃화분 전달을 통해 나눔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박길오 중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봄꽃을 키우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위기가구의 발굴, 돌봄 서비스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중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홀로 사는 노인, 중증장애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봄꽃화분과 희망 엽서를 전달했다. 광양시 제공

보성서 전국요트대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가대표후보팀 전훈 낙점 5월5일부터 요트전국대회

보성군이 전국요트대회지로 낙점되며 요트 메카로 급부상 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전국요트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보성군에 따르면 ‘국가대표 요트 후보팀’ 동계 전지훈련지로 낙점을 받았으며 오는 5월에는 ‘2023 한국 옴피스트 전국요트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요트협회에 등록된 선수 100여 명이 2개(옴피스트·토파

즈) 종목 12개 부(초등·중등·일반)로 나눠 참가한다. ‘제11회 보성세계차역스포’ 기간에 개최돼 많은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온화한 기후와 요트 경기에 적합한 해양 환경 덕에 전지훈련지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26일~11일 특량면 보성비봉 마리나에서 국가대표요트 후보팀이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동계 전지훈련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요트협회가 주관해 1인승, 2인승을 포함한 7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 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34명의 선수가 참여했

다. 주말에는 인근 지역 요트팀과 전력 강화, 선수 평가 및 영입과 트레이드에 나서는 활동 및 훈련인 스토티브리기도 2회 병행했다.

보성비봉마리나는 2017년 문을 열었으며 계류시설 24선석, 클럽하우스(355㎡), 수리동, 육상적치장 15선석, 폭 28m의 슬립웨이 등을 갖추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육지를 넘어 바다까지 활발한 스포츠대회 유치·개최를 통해 스포츠 메카 보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순천정원박람회 입장권 단체 구매·기부 쇄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기업체, 공공기관, 봉사단체 등 성공을 기원하는 입장권 구매와 기부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14개 기업체 및 단체와 입장권 구매증서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구매한 기업은 한국노총 순천지역본부 2000만원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협의회 1055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000만원 △전남개발공사 1000만원 △㈜연제측량기술원 1000만원 △순천남도청과 1000만원 △㈜효석 1000만원 △

알파조경(주) 1000만원 △광주을로은수·(합)순천교통 800만원 △남일청과(주) 500만원 △순천시남여의용소방대가 200만원 등이다.

기부 물품 전달도 이뤄졌다. 전달 단체는 △로드파크 전기카트 2대(3000만원 상당) △순천아이클생협 생수 1352박스 △㈜제이제이코리아 입장권(240만원 상당)을 박람회 조직위에 기탁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노후 도움 한의학 건강교실 운영 광양시보건소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한의학 건강 교실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주제로 한 한방 건강교육과 함께 혈관 숫자 알기(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측정) 등 예방·관리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마통합보건지소 박동훈 한방 공중보건은 “만성질환(고혈압·당뇨)의 원인, 증상,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개인별 증상에 따른 간단한 T침(이침)시술과 한방 엑기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의학 건강 교실 사업은 분기별 1회 시행 예정이며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 중마보건팀(061-797-4890, 4069)으로 문의. 광양=안영준 기자

토요시장서 봄나드리 페스티벌 장흥군, 시장활력 지원



장흥군은 지난 11일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에서 봄나드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4년 만에 열린 행사는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대표 최기순)와 함께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토요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관객들은 표고버섯, 매생이, 키조개 등을 활용한 추억의 음식 오색 부꾸미와 표고전, 매생이 전 등을 시식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장흥군은 고장의 맛과 관광지를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및 전남사랑앓서포터즈를 홍보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2023년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 선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전남도 유니크 메뉴’ 선정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

보성군은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전남도 유니크 메뉴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유니크 메뉴는 도시의 고유한 컨셉이나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전문시설이 아니라도 마이스(MICE) 등의 행사 개최가 가능한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전남도는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남도 유니크 메뉴를 선정·발표했다.

보성군은 유니크 메뉴 선정으로 마이스 기관·단체의 중·소규모 회의 때 전남도로부터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유니크메뉴 인증서 수여와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활용, 웰니스 체험 운영, 전시박람회 참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2023 코리아 유니크 메뉴 후보에도 오른다. 김은지 기자